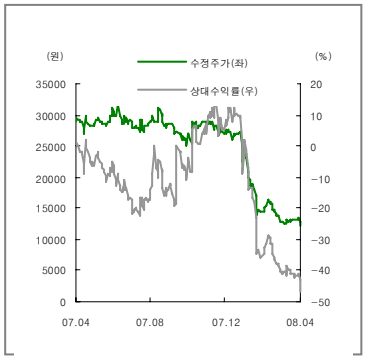
레드캡투어(038390) N.R

Analyst / 손세훈 (769-2076)
wang2ma@daishin.com

현재가(08/04/11)	12,100원
액면가	500원
KOSDAQ	651.87
52주 최고/최저	33,050원/ 12,000원
자본금(보통주)	33억원
시가총액	822억원
외국인지분율	6.88%

주가상승률(%)	절대주가	상대주가
1개월	-6.9	-10.5
6개월	-54.5	-43
12개월	-58.3	-56.7



안정적인 B2B 서비스를 기반으로 B2C 서비스로 성장하는 기업

레드캡투어는 2006년 11월에 코스닥 상장사인 미디어솔루션을 합병하며 우회상장하였다.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상용여행서비스와 렌터카 서비스, 패키지 여행 사업이다.

상용여행서비스와 렌터카 서비스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안정적인 매출과 높은 수익성을 보유하고 있다. 패키지 여행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여행서비스로 2009년에는 흑자전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용여행서비스는 2007년 LG그룹 계열의 매출 비중이 70%대까지 낮아졌다. 상용여행서비스는 연평균 10%의 안정적인 성장과 영업이익률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2008년 상용여행서비스 매출은 전년보다 14% 증가한 162억원,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30% 증가한 52억원으로 예상된다.

렌터카 사업 역시 LG그룹에 대한 의존도가 40%대로 낮아져 다양한 고객을 확보하였으며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8년 매출액 498억원, 영업이익 54억원으로 전망한다.

동사의 2008년 과제는 패키지 사업의 집중이다. 성장성이 높은 패키지 사업의 적극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리점 확보를 통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2009년에는 패키지 사업의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

동사의 2008년 매출액은 790억원, 영업이익이 101억원, 순이익 120억원을 예상한다. 동사는 2007년 한해동안 공격적인 M&A로 영업외적인 면에서 관심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종합 여행업체로써 재조명을 받아야 한다.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매출액 (억원)	영업이익 (억원)	세전이익 (억원)	순이익 (억원)	EPS (원)	증감 (%)	PER (배)	PBR (배)	EV/ EBITDA (배)	ROE (%)	ROIC (%)
2005.12A	47	1	3	3	92	2.7	110.3	2.3	114.1	2.1	3.4
2006.12A	34	-16	-25	-31	-934	적전	-	5.3	-	-15.3	-40.5
2007.12A	713	76	-220	-183	-2,842	적지	-	4.2	6.7	-51.6	18.5
2008.12F	790	101	138	107	1,319	흑전	9.2	1.5	2.6	19.1	10.4
2009.12F	958	135	103	82	949	-28.0	12.7	1.3	2.3	11.1	10.3

자료: 레드캡투어, 대신증권 추정, 2006년 우회상장

상용여행, 렌터카의 안정적인 실적 + 패키지 사업의 성장

B2B 사업 주력

레드캡투어(038390)는 여행사업과 렌터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동사의 여행사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패키지여행사업보다는 B2B를 대상으로 하는 상용여행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다. 렌터카의 경우도 B2C 렌터카 사업이 아닌 B2B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디어솔루션을 통해 우회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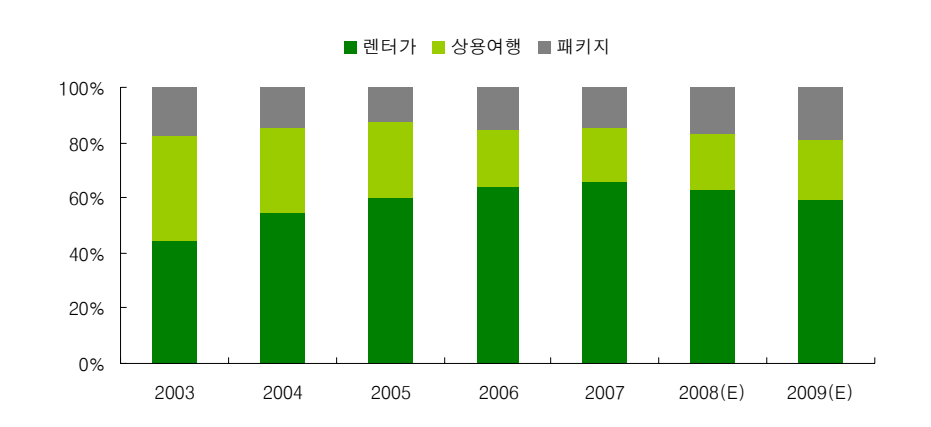
레드캡투어는 2006년 11월 범한여행이 코스닥 상장사인 미디어솔루션을 통해 우회상장하며 레드캡투어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레드캡투어의 최대주주는 범한판토스이며 2대주주는 LG家 3세인 구본호씨이다. 범한판토스의 최대주주 역시 구본호씨이며 주요 사업은 LG 계열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다.

동사는 2007년 우회상장에 이어 액티패스 , OK투어, 동일철강을 인수를 하면서 영업외적인 면에서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이 희석화되면서 동사의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종합여행업체로써의 재평가 필요

동사의 대한 관점은 M&A 이슈가 아니라 종합 여행업체로써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판단이다. 상용여행서비스와 렌터카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LG계열이 아닌 타법인의 비중 증가, 패키지 사업의 매출 확대가 동사에 대한 포인트이다. 또한 상용여행 서비스 전세계 1위 업체인 AMEX와의 제휴는 동사의 상용여행 서비스 실적을 증가시켜줄 것이다.

사업부별 매출 비중



자료: 레드캡투어, 대신증권

법인들의 업무효율성 증가로 상용여행서비스 수요 증가

해외 출장과 관련된 전반적 서비스 제공

레드캡투어의 주요 사업은 상용여행 서비스이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가 간접판매 위주의 패키지 여행업체인 반면 레드캡투어는 법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용여행서비스는 항공권, 숙박, 비자 등 해외출장에 관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경우는 비자발급과 출입국 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데 동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신속하게 입국이 진행되기 때문에 법인들의 업무효율이 높아진다. 또한 법인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출장서비스에 대한 아웃소싱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동사의 경쟁업체로는 세중나모여행이 있으며 삼성계열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LG그룹의 의존도 점차 감소

동사는 LG그룹과의 관계로 인해 LG/GS/LS그룹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LG그룹의 안정적인 수익을 기반으로 타법인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04년 85%에 달했던 LG그룹의 매출 비중이 2007년에는 71%까지 비중이 낮아졌으며 2008년에는 65%, 2009년에는 58% 수준까지 LG그룹의 의존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상용여행서비스는 패키지 서비스에 비해 대외변수에 비탄력적

상용여행서비스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패키지 여행서비스보다는 성장성은 낮지만 실적이 안정적이다. 환율, 유가와 같은 대외변수는 B2B서비스에서는 비탄력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상용여행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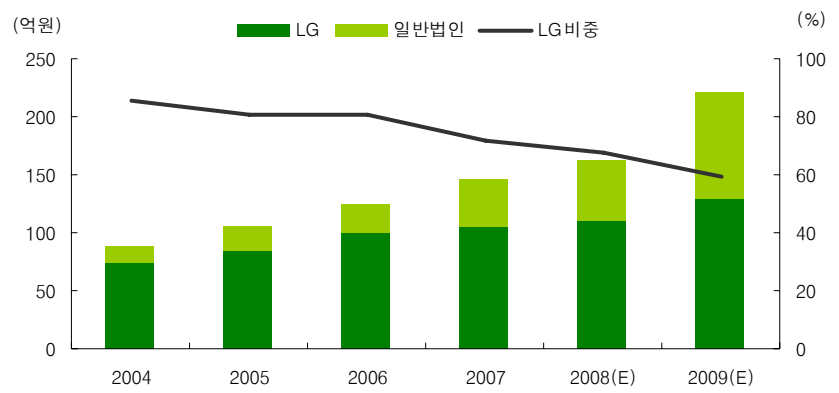
해외시장 공략 본격화

동사는 2008년 2월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을 설립을 완료하고 3월 1일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였다. 인도네시아 법인은 아주지역 여행사업의 교두보 역할을 하며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과 인도네시아 기업들을 대상으로 상용여행서비스를 제공한다.

인도네시아 현지에는 LG전자 생산법인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기반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동사는 추가적인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해외시장공략을 본격화 할 것이다.

상용여행 서비스 법인 비중



자료: 레드캡투어, 대신증권

안정적인 실적의 상용여행 서비스

안정적인 매출과 30%대의 영업이익률

상용여행 서비스 매출은 동사 매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상용여행은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실적이 발생하고 있으며 30%대의 높은 영업이익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세계 상용여행서비스 1위 업체인 AMEX와의 제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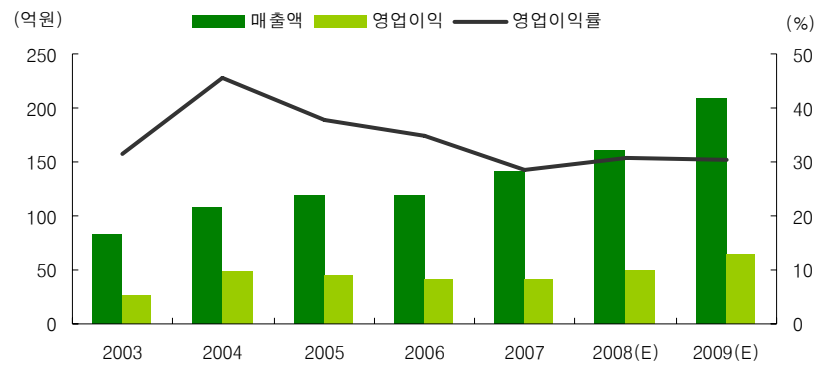
동사는 LG그룹의 매출비중이 높아 성장의 한계가 있었지만 점차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전세계 상용여행서비스 1위 업체인 AMEX와의 제휴는 동사의 성장모멘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전세계적으로 상용여행 서비스는 AMEX, C/W, HRG가 삼분하고 있다. 북미/남미에서는 점유율이 AMEX 12.6%, C/W 7.6%,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아프리카에서는 AMEX 17.5%, C/W가 10.8%, HRG가 3.7% 점유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AMEX 14.3%, C/W 9.8%, HRG 4.3% 차지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AMEX는 동사와 제휴를 하고 있고 C/W는 비상장사인 Mac Tour, HRG는 BT&I와 제휴를 맺고 있다. BT&I는 최근 볼빅을 통해 우회상장하였다.

동사는 AMEX와 제휴를 맺음으로써 AMEX와 거래하는 다국적 기업의 한국법인들에게 상용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상용여행서비스의 2008년 매출은 전년보다 14% 증가한 162억원, 영업이익은 30% 증가한 52억원으로 예상된다.

상용여행 서비스 실적



자료: 대신증권

법인의 업무효율화와 비용절감효과로 렌터카 아웃소싱 증가

동사의 총 매출의 65%는 렌터카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렌터카 사업은 사업자가 차량을 구매하여 고객에게 대여함으로써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로 단기대여와 장기대여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렌터카 사업구조는 단기대여는 B2C

단기대여는 6개월 미만의 비정기적으로 차량을 대여하는 형태로 레저나 여행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주요 고객층은 일반 개인이다. 주 5일제의 확대로 여행이나 레저활동시간이 증가하고 국민들의 생활패턴이 변화화면서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장기대여는 B2B

장기대여는 차량대여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주요 고객층은 법인이다. 법인은 차량을 직접 구매에서 운영하기보다는 더 나은 편의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렌터카를 통해 법인차량을 운영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렌터카의 장점은 비용절감 효과

렌터카의 장점은 첫째 비용절감 효과이다. 렌터카는 직접 차량 취득에 비해 초기비용 부담이 적고 대여기간 동안 렌트료의 전액 손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다. 또한 렌커타의 경우 LPG 전용차량, 연료탱크 구조변경을 통한 LPG 연료 사용이 가능하므로 연료비절감효과도 발생한다.

차량관리의 편리함

둘째 차량관리의 편리함이다. 복잡한 차량관리 업무에서 벗어나 업무에만 신경쓸 수 있도록 모든 차량관리 업무 및 보험업무 등 차량과 관련 업무를 렌터카 회사에서 전담한다. 또한 교통사고시 사고처리, 차량수리, 차량대차서비스 등을 렌터카 회사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사고처리에 따른 업무공백, 번거로움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국내 렌터카 차량 등록대수는 연평균 16.2% 씩 증가

국내 렌터카 차량 등록대수는 2003년 91,584대에서 2007년 167,152대로 연평균 16.2% 증가하였다. 매출규모로 2003년 7,183억원에 불과했던 매출이 2007년에는 1조원을 돌파하여 연평균 11% 씩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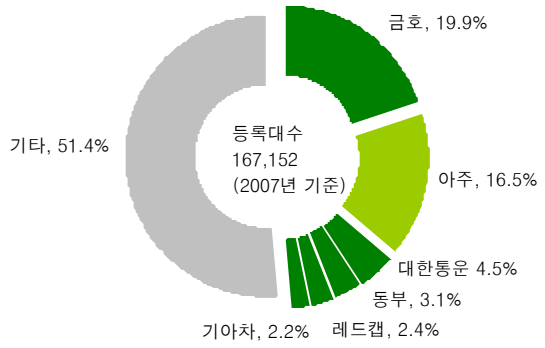
국내 등록업체수는 2007년을 기준으로 615개이며 상위 6개사가 5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차량 등록대수 기준으로 국내 1위 업체는 금호렌터카로 점유율은 19.9%, 아주렌터카가 16.5%이다. 동사의 경우는 점유율 2.4%로 5위를 유지하고 있다.

렌터카 시장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렌터카 시장					
업체수	493	491	514	563	615
차량등록대수	91,584	95,399	108,694	133,934	167,152
매출규모(억원)	7,183	8,188	9,361	9,800	10,891
레드캡투어					
차량등록대수	1,554	2,010	2,687	3,284	4,044
등록대수 점유율(%)	1.70	2.10	2.47	2.45	2.42
매출액(억원)	96	190	264	350	468
매출액 점유율(%)	1.34	2.32	2.82	3.57	4.30

자료: 자동차대여조합, 레드캡투어

렌터카 등록대수 기준 점유율



자료: 대신증권

2008년 렌터카 사업 매출액 503억원, 영업이익 54억원 예상

법인고객 기반 다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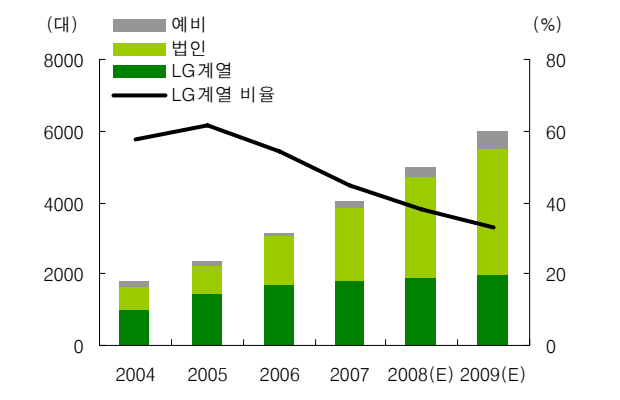
동사의 렌터카 사업부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대여 사업이다. 상용여행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렌터카 사업의 경우도 LG그룹에 대한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2003년 LG 계열의 비중이 68% 달했으나 2007년에는 44%까지 낮아져 법인 고객 기반을 다양화하고 있다.

안정적인 매출과 높은 수익성

동사의 렌터카 매출은 고객수의 증가로 실적이 꾸준히 증가한다. 2007년 매출액은 468억원, 영업이익 54억원을 기록하였다. 동사의 렌터카 사업은 법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0%대의 이익률을 보인다. 이에 반해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금호렌터카는 B2C 비중이 높아 4%대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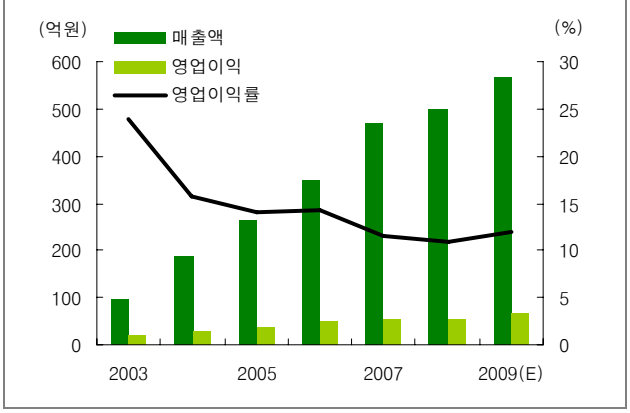
동사는 렌터카 차량을 매년 1,000대씩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08년에는 차량보유대수가 약 5,000대를 예상하며 매출액은 503억원, 영업이익은 54억원을 전망한다. 2008년 영업이익이 매출액에 비해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렌터카 차량 매각이 2007년에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렌터카는 신차구입 후 3년 뒤에 매각하는데 동사의 경우 2004년에 신차구입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LG그룹 계열 비중



자료: 레드캡투어, 대신증권

렌터카 사업 실적 추이



자료: 레드캡투어, 대신증권

렌터카업체

구분	AVIS(Mil,$)	HERTZ(Mil, $)	금호렌터카(억원)	아주렌터카(억원)
매출액	5,986	8,685	2,896	1,963
영업이익	640	1,262	123	260
당기순이익	-916	264	-33	74
영업이익률(%)	10.7	14.5	4.2	13.2

자료: Bloomberg, DART

렌터카 차량 대수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F)	2009(F)
연말보유차량	1,554	2,010	2,687	3,284	4,044	5,144	6,244
신규취득차량	617	1,137	935	1,302	1,890	2,000	2,300
연중매각차량	161	460	338	542	1,000	900	1,200

자료: 레드캡투어

패키지 여행 사업 2009년 턴어라운드

패키지 여행사 사업 투자 집중화

동사의 상용여행사업과 렌터카사업은 법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패키지 여행 부문은 매출 기여도가 낮고 수익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사는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2008년부터 패키지 사업을 집중할 계획이다. 동사는 이 같은 수순으로 지난해 간접판매 여행사인 오케이투어 지분 40%를 60억원에 인수하였다. 오케이투어는 하나투어, 모두투어에 이어 3번째로 설립된 도매여행사로 대리점 4,000여개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이다. 오케이투어를 인수함으로써 도매여행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영업망을 확보하게 되어 동사와의 패키지여행사업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레드캡투어 자체적으로도 대리점 수를 공격적으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2008년에는 대리점수 60개, 2009년에는 100개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동사는 추가적으로 패키지 여행사를 인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패키지 여행사의 턴어라운드는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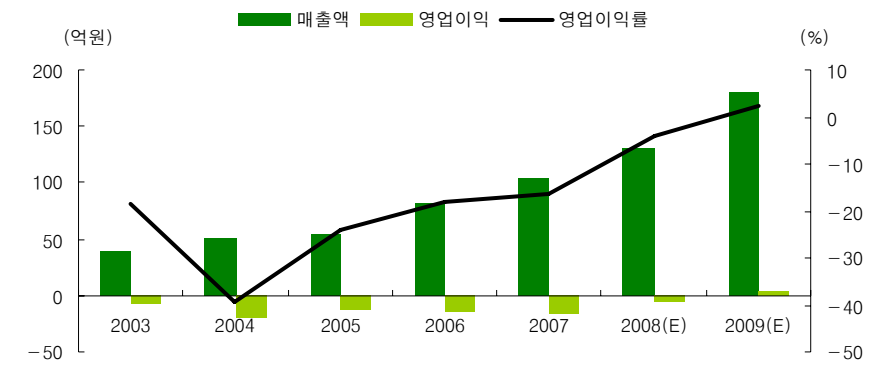
간판여행사인 OIK투어 인수로 시너지 효과 기대

대리점수 확장

2009년 패키지 사업 턴어라운드 예상

2008년 매출액은 130억원 영업손실은 5억원 2009년에는 매출액 180억원, 영업이익은 4억원으로 예상된다.

렌터카 서비스 실적



자료: 레드캡투어. 대신증권

B2B 서비스의 안정적 성장과 패키지 여행의 턴어라운드가 투자포인트

2008년 매출액 790억원, 영업이익 101억원, 순이익 107억원 예상

동사의 2008년 실적은 매출액 790억원(+10.8% YoY), 영업이익이 101억원(+32.9% YoY), 순이익이 107억원(흑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렌터카서비스와 상용여행서비스는 LG그룹계열의 안정적인 매출을 기반으로 非LG법인의 매출이 증대되고 AMEX와의 제휴로 상용여행 서비스의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30% 증가한 52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패키지 여행서비스는 대리점 확대와 여행자 개별여행 시장을 집중 공략하면서 적자 폭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2009년에는 턴어라운드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사는 2008년 2월 자회사인 액티패스(지분 19.5%, 121만8750주)를 매각하였다. 주당 11,500원이며 매도가액은 140억원이다. 장부가액은 31억원이기 때문에 액티패스 매각으로 발생하는 영업외수익은 109억원이다.

2008년 실적을 기준으로 한 PE Ratio은 9.2배이다. 동사는 렌터카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업체인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와 직접 비교하긴 어렵지만 여행업체의 성장성을 감안하면 저평가 되어 있다는 판단이다.

레드캡투어는 2007년 우회상장하면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보다는 M&A라는 외적인 요인에 의한 변동성이 컸다. 그러나 2008년에는 B2B서비스의 안정적인 성장, 패키지 여행의 턴어라운드가 동사의 투자포인트가 될 것이다.

Income statement

(단위 : 억원)

	2005A	2006A	2007A	2008F	2009F
매출액	47	34	713	790	958
매출액증가율 %	40.9	-28.7	2,007.2	10.8	21.3
매출원가	39	36	382	411	489
매출총이익	8	-2	331	379	469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7	14	254	278	334
영업이익	1	-16	76	101	135
영업이익률 %	2.2	-46.1	10.7	12.8	14.1
영업외수익	4	6	110	124	15
이자수익	3	6	13	11	7
외환관련이익	0	0	1	2	3
영업외비용	2	16	407	87	47
이자비용	0	10	54	64	38
외환관련손실	0	0	2	3	4
경상이익	3	-25	-220	138	103
특별손익	0	0	0	0	0
법인세차감전순이익	3	-25	-220	138	103
법인세비용	0	6	-40	30	22
당기순이익	3	-31	-183	107	82
EPS	92	-934	-2,842	1,319	949

Cash flow statement

(단위 : 억원)

	2005A	2006A	2007A	2008F	2009F
영업활동현금흐름	9	-19	346	351	515
당기순이익	3	-31	-183	107	82
감가상각비	1	1	238	332	424
무형자산상각비	0	0	1	0	0
영업활동관련 자산부채 변동	3	-4	-118	1	7
투자활동현금흐름	-2	10	-1,043	-353	-635
투자자산 투자	-1	12	-238	151	70
유형자산 투자	0	-1	-523	-610	-700
무형자산 투자	-1	0	-3	-2	-3
재무활동현금흐름	0	264	421	0	110
단기차입금 증가	0	0	-90	0	0
사채 증가	0	151	308	-151	110
장기차입금 증가	0	0	0	0	0
유동성장기차입금 상환	0	0	0	0	0
자본 증가	0	105	0	151	0
배당금 지급	0	0	-13	0	0
순현금흐름	8	255	-276	-2	-10
기초현금	36	43	299	23	20
기말현금	43	299	23	20	10

Balance sheet

(단위 : 억원)

	2005A	2006A	2007A	2008F	2009F
현금 및 현금등가물	43	299	23	20	10
단기금융상품/유가증권	10	9	261	110	40
매출채권	3	10	52	57	69
재고자산	1	2	0	0	0
유동자산	75	347	424	276	208
투자자산	45	13	120	102	102
유형자산	21	20	720	998	1,273
무형자산	2	2	4	6	9
자산총계	143	382	1,268	1,382	1,592
매입채무	3	2	93	100	119
단기차입금	0	0	0	0	0
유동성장기차입금	0	0	0	0	0
유동부채	5	5	244	251	269
사채	0	103	571	420	530
장기차입금	0	0	0	0	0
고정부채	0	104	590	439	549
부채총계	5	108	834	690	819
자본금	15	23	34	43	43
자본잉여금	134	285	487	629	629
이익잉여금	29	-3	-44	63	145
자본총계	138	274	433	692	773

Financial ratios

	2005A	2006A	2007A	2008F	2009F
유동비율 %	1,592.2	7,489.6	174.0	110.2	77.2
당좌비율 %	1,574.8	7,443.8	174.0	110.2	77.2
부채비율 %	3.6	39.6	192.4	99.7	105.9
차입금/자기자본 %	0.0	37.8	131.7	60.7	68.5
차입금의존도 %	0.0	27.0	45.0	30.4	33.3
순차입금/자기자본 %	-39.0	-74.6	66.3	41.9	62.1
유보율 %	793.8	1,096.5	1,176.9	1,510.8	1,700.7
매출액증가율 %	40.9	-28.7	2,007.2	10.8	21.3
EBITDA 증가율 %	-219.4	-704.8	-2,392.5	37.1	29.0
영업이익 증가율 %	-134.6	-1,581.1	-590.8	32.2	33.6
경상이익 증가율 %	24.0	-1,007.8	773.6	-162.5	-25.0
당기순이익 증가율 %	2.7	-1,204.9	481.0	-158.8	-24.0
EPS 증가율 %	2.7	-1,110.4	204.3	-146.4	-28.0
총자산 증가율 %	3.8	168.1	231.5	9.0	15.2
투하자본 증가율 %	55.3	45.7	990.6	44.8	30.2
EBITDA 마진 %	4.8	-40.8	44.4	54.9	58.4
영업이익률 %	2.2	-46.1	10.7	12.8	14.1
경상이익률 %	5.9	-74.5	-30.9	17.4	10.8
법인세차감전순이익률 %	5.9	-74.5	-30.9	17.4	10.8
당기순이익률 %	6.0	-92.9	-25.6	13.6	8.5
이자보상배율 x		-1.6	1.4	1.6	3.6

Valuation guide

	2005A	2006A	2007A	2008F	2009F
ROE %	2.1	-15.3	-51.6	19.1	11.1
COE %	15.6	12.6	10.7	11.4	11.4
ROE-COE %	-13.5	-27.9	-62.3	7.7	-0.3
ROE/COE x	0.1	-1.2	-4.8	1.7	1.0
EBIT	1	-16	76	101	135
NOPLAT	1	-19	63	79	107
Pre-tax ROIC %	3.3	-32.5	22.6	13.3	13.1
ROIC %	3.4	-40.5	18.5	10.4	10.3
ROIC-WACC %	-12.2	-53.8	7.2	-0.6	0.8
ROIC/WACC x	0.2	-3.0	1.6	0.9	1.1

Per share data

	2005A	2006A	2007A	2008F	2009F
EPS	92	-934	-2,842	1,319	949
PER x	110.3	-33.9	-9.5	9.2	12.7
CFPS	132	-881	890	5,404	5,889
PCFR x	77.1	-36.0	30.3	2.2	2.1
BPS	4,469	5,983	6,385	8,054	9,003
PBR x	2.3	5.3	4.2	1.5	1.3
SPS	1,541	1,005	11,093	9,706	11,154
PSR x	6.6	31.5	2.4	1.2	1.1
EBITDA/share	74	-410	4,923	5,328	6,513
P/EBITDA x	137.6	-77.3	5.5	2.3	1.9

이 조사자료는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가 기업분석을 희망하는 상장법인과 리서치사를 연계하여 주기적으로 분석보고서가 공표되도록 하는 사업인 KRX Research Project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고서의 내용은 상기기관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손세훈)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 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증권업 감독규정 제 4-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고객들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당사는 동사와 LP(유동성 공급자)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 산업 투자의견

- Overweight(비중확대): 향후 6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초과 상승 예상
- Neutral(중립): 향후 6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과 유사한 수준 예상
- Underweight(비중축소): 향후 6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하회 예상

▶ 기업 투자의견

- Buy(매수): 향후 6개월간 시장수익률 대비 10%p 이상 주가 상승 예상
- Marketperform(시장수익률): 향후 6개월간 시장수익률 대비 -10%p~10%p 주가 변동 예상
- Underperform(시장수익률 하회): 향후 6개월간 시장수익률 대비 10%p 이상 주가 하락 예상